

지지율 상승세 손학규 “해볼 만한 싸움”

분당을 보선 인물론 앞세워 ‘나홀로 유세’ 주효 중산층 스킨십 강화·젊은층 투표율 제고 총력

4·27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손학규 대표의 지지율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신승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텃밭으로 여겨졌던 분당을의 민심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여론에 대한 실망감과 중도 성향의 손학규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8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분당을의 전반적인 관세는 손 대표가 상승 기류를 타면서 백중 유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관세 흐름이 선거 막판까지 유지된다면 손 대표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출마 당시만 해도 ‘당을 위한 희생’이라며 회의감이 적지 않았지만 예상외로 관세가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자 “해볼 만한 싸움”이라며 고무된 분위기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절충성으로 평가받던 분당을에서 승리한다면 내년 총선, 대선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손 대표도 차기 대권 행보에 탄력을 볼 전망이다.

손 대표 측은 선거 전략 측면에서 ‘인물론’을 앞세운 ‘나홀로 유세’가 분당

표심을 과고드는데 주효했다는 판단에서 앞으로 ‘조용한 선거’ 기조를 유지하면서 밀착형 스킨십 강화를 통해 중산층을 공략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당 대 당 대결구도를 유도하며 총력전에 돌입한 한나라당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분당 민심을 공략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손 대표는 선거운동 현장에서 어깨띠를 두르지 않는 등 당색을 최대한 희석시키면서 지역 정서를 자극하지 않는 데도 신경을 쓰고 있다. 민주당도 눈에 보이지 않게 외곽조직 등을 총동원, 연구 찾기를 통한 바둑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은 보좌진들을 분당에 파견, 선거 지원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총동원, 지지율 호소하는 한편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손 대표

의 상승세가 선거 당일 보수층 결집을 유도할 수 있다며 경계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30~40대 유권자의 투표율에 따라 당락이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 유권자들의 투표율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관세는 약간 유리하지만 승리를 장담할 정도는 아니며 오히려 실업률 등을 견는 기본”이라며 “결국 이번 선거는 투표율이 승패를 좌우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강원 춘천시 오의동 최문순 후보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지사 탈환이나 수성이나”

여야 지도부 총출동 ... 상호 비방전도

여야 지도부는 18일 강원도 춘천에 총출동, 각각 강원지사 탈환과 수성 을 놓고 격돌했다.

지난 13~15일 2박3일 일정으로 강원을 찾았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다시 춘천을 방문, 표밭을 점검했다. 안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강원도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원도가 더 발전하려면 도민의 열원과 정부, 집권당, 엄기영 도지사의 네 박자가 맞아야 한다”며 “현재 (강원도 출신) 차관급은 6~7명 정도가 등용되어 있지만 장관급이 없다. 장관들

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춘천 브라운상가에 서의 거리유세에 이어 춘천과 횡성을 찾아 합 있는 여당 후보를 강조하며 엄기영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주말인 지난 16일 원주에서 의원총회를 연데 이어 이날 춘천에서 최고위원회를 가진 뒤 지원유세를 벌였다. 특히 이날 분당에 출마한 손학규 대표가 지난 8일 강릉 방문에 이어 9일 만에 강원을 찾았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최문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박지경 원내대표, 정세균

최고위원 등과 함께 최고위원회를 갖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최 후보를 당선시켜 평화 속에서 발전하는 강원도의 꿈과 자존심을 살려내자”면서 최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또 “오는 27일은 강원도와 남북이 평화 속에서 공동으로 번영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인데, 아니면 계속 전쟁의 위험 속에 살 것인가를 가름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강원도지사를 보선을 ‘전쟁세력화 평화세력화 대결’ 구도로 규정했다.

한편, 엄기영 후보가 자신이 삼성

의 대규모 생명산업 강원도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하자 이에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엄 후보는 지난 15일 춘천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그동안 원주·횡성·홍천 의료기기 산업벨트 육성을 위해 정부에 의존하는 대신 민간투자에 관심을 가져왔다”며 “대기업과 꾸준히 대화를 가져온 결과 최근 메디슨을 인수한 삼성으로부터 생명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문순 후보 선대위 이상호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삼성의 메디슨 인수는 이광재 전 지사가 재임 중이던 지난해 12월14일 이미 결정된 일로서, 강원도청 차원에서 12월20일 ‘후속조치’를 위해 면밀한 계획과도 차원의 지시를 내렸던 문제”라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박빙’ 재보선 네거티브전으로 가나

‘철재 정치인’ ‘변절자’ 내세워 상대 흠집내기

4·27 재보선 열기가 고조되면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선거전(戡)이 재연되고 있다. 주요 격전지가 박빙의 관세를 보이자 상대 후보 흠집내기를 통해 선거구도를 유리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로 보이거나 곳곳에서 역풍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대 승부처인 분당을 보궐선거에서는 한나라당발 네거티브 선거전이 불붙었다.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는 분당에 연고가 없는 민주당 손학규 후보에 대해 ‘철재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쓸곤 쓰며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1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가 대권 후보

자들의 대권 야망을 채우기 위해 악용되는 데 대해 개탄한다”며 손 후보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 측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상대방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철회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김해를 선거에서는 여야간 네거티브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뻔했다. 지난 16일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김무성 원내대표가 야권 단일후보인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에 대해 “과거 민정당을 했던 사람으로, 이 당 저 당 오락가락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사실

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김 원내대표는 18일 이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와 “내 경솔하게 말한 것에 대해 이 후보에게 미안하다”고 직접 사과했다.

강원도에서는 민주당이 먼저 포문을 열어 한나라당 후보를 공격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 전인 지난달부터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에 대해 ‘변절자’, ‘배신자’, ‘100m 마당’ 등 거친 용어로 공세를 취해 왔다.

그러자 엄 후보는 지난 14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이 전 지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서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진 것이며 이를 정치탐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라고 맞불을 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EU FTA 몸싸움은 하지 말자”

여야 자정모임 의원, 4월 임시국회 합의 처리 촉구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기권으로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부결된 가운데, 18일 여야 국회 자정모임에 속한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과 한-EU FTA의 비준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다. 지난해 예산안 강행처리 논란에 따라 국회를 바로 세우고자 모였던 한나라당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과 민주당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한-EU FTA의 비준안은 피해농가 보호 등의 추가대책을 보완해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직권상정제한법 및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에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여야 모두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 및 방해물 제거하고, 같이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날 합의 직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찾아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같이 의견을 모은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성명서를 전달 받은 김 원내대표는 “한-EU FTA 농가들과 관련, 농업에 피해가 있다면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물리적 동원인가”라고 외교통상위원회 소위 부결 사태를 비판했다.

이에 외교통상위원인 남경필 의원은 “한-EU FTA 문제는 의외위에 맡겨주면 여야간 원만한 합의의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자정모임에는 한나라당 황우여·남경필·구상찬·정태근·김성식 의원, 민주당 원혜영·정장선·김성곤·유재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새 원내대표 경선 내달 2일

일부 최고위원 연기 요청 수용 안돼 논란일 듯

한나라당은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을 다음달 2일 개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안상수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배은희 당 대변인이 전했다.

배 대변인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안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면서 “선관위 구성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은 원내대표 후보와 함께 정책위의장 후보가 러닝메이트가 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3선의 원유철 의원, 위원으로는 장윤

석·김성동·강명순·이두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경선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나경원·정두언·서병수 최고위원은 “재보선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원내대표 선거전을 치르면 당이 분열될 수 있다”면서 선출 시기를 7~10일간 연기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홈페이지제작은 기본!
모바일홈페이지 까지!**

도메인 호스팅
홈페이지만 만들면 이 모든것이 무료!

로그인 디자인 컨설팅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 상담 쪽지!
(아바콘, 안드로이드 용)

상담문의 010-2637-9358
마블아이앤씨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KDB빌딩 1904호

공무원대출

공무원 대출

- ▶ 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금액 : 500만원~8,000만원
- ▶ 금리 : 년 5%~
 - 대출과다나 연체로 대출이 어려운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개인회생, 신용회복 지원중이신 분 가능

직장인 대출

- ▶ 금액 : 500만원~5,000만원
- ▶ 금리 : 년 9%~
- ▶ 대상 : 3개월 이상 근무자 누구나 가능 (신용불량자 제외)

하나 1544-0936
011-705-2230

등록번호: 2011-3430067-25-5-00009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00-13(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부중개업 등록기간 : 대구광역시 대표자 : 백영학
제1금융권이자율:최저년5.5%~13%(연체금리 18%~22%) 제2금융권이자율:최저년11.9%~33%(연체금리 22%~44%) 제3금융권이자율:최저년33%~44%(연체금리 44%)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ENG 방수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포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